

사이클 유망주 송하빈 '쾌조의 스타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 2관왕 16세 이하부 제외경기에선 심한 견제속 은메달 오는 27일 개막 전국소년체육대회서 메달 기대

대한민국 사이클 유망주 송하빈(제주동중)이 제25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2관왕에 오르며 올 시즌 합찬 출발을 알렸다.

송하빈은 10일 경북 영주시 경륜훈련원에서 열린 대회 여자 16세 이하부 스크래치 3km에서 라이벌 황운미(전남체중)를 따돌리며 우승을 차지했다. 송하빈은 스크래치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이어 벌어진 제외경기에서 송하빈은 황운미와 임소연(전남체중)의 심한 견제 속에 초반 오버페이스 영향으로 황운미에 간발의 차로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송하빈은 지난 9일 치러진 1km 개인추발에서 정상에 올랐다. 송하빈은 이날 경기에서 1분 24초 047의 기록으로 이현지(전북체중, 1분 22초 490)와 황운미(1분 22초 786)를 따돌리고 가장 먼저 골인했다.

송하빈이 이번 대회에서 금 2개와 은 1개를 획득하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5.27~30)에서 귀중한 메달 선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하빈은 지난해 대회에선 1km 개인추발에서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들과 겨뤄 4위에 올랐다.

송하빈은 앞서 1학년으로 2021 음성 전국사이클대회에서 팀의 종합우승을 차지하는데 기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단체추발 2km와 단체스프린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데 한 몫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제39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스크래치 2위를 비롯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스크래치 1위와 음성 전국사이클대회 개인추발 2위,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 개인추발 및 스크래치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맹활약했다.

이에 따라 송하빈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중등부 시절 성공적인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대회 첫 날 열린 단체추발 2km에서 송하빈이 포함된 제주동중은 1학년들의 경기경험 부족 등으로 4위에 만족해야 했다.



제25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송하빈. 강희만기자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도민체전 읍면동선수단 참가 평가회 서귀포시체육회 운영개선 등 의견 수렴

서귀포시체육회(회장 김태문)는 지난 9일 체육회 회의실에서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림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됐던 제57회 도민체전 서귀포시 읍면동선수단 참가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서귀포시 17개 읍면동체육회장, 서귀포시청 관계자, 도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해 제 57회 대회에서의 서귀포시선수단 참가 결과 보고와 읍면동대항 종목의 다변화 및 참여인원 확대, 대회 축제분위기 확산에 대한 방안 등 운영방안의 개선(안) 사항을 논의했다.

또 순환개최에 따라 서귀포시에 개최되는 제58회 대회에서의 읍면동체육회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6일 개막 울산광역시 일원서 19일까지 나흘간 열전

장애인체육 꿈나무들의 최대 축제인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16일부터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나흘간의 열전을 펼친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3479명(선수 1639명, 임원 및 관계자 1840명)의 선수단이 등재를 마쳤다.

대회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학생들이 육성종목(5종목), 보급종목(10종목), 시범종목(1종목), 전시종목(1종목) 등 총 17개 종목에 참가한다. 육성종목은 우수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엘리트대회 방식을 운영되며 보급종목의 경우 체육활동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생활체육대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영, 스퀀턴, 육상, 조정, 탁구, e스포츠 등 7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관계자 등 113명이 출전한다.

선수단은 지난해 대회에선 4개



종목에서 금 15, 은 8, 동 3개 등 총 2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개회식은 '꿈꾸는 고래들이여, 희망의 바다로!'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4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울산광역시의 산업, 생태환경 및 문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제주 골퍼들 "부진의 늪 탈출하라"

12일 개막 2023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임진희·현세린·고지우·고지원·양효리 등 출격

KLPGA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주출신 골퍼들이 올 시즌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채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어느 덧 시즌 여덟 번째 대회를 맞게 됐다.

12일부터 수원 컨트리클럽(파 72·6586야드)에서 열리는 2023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8억 원)이 부진 탈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임진희, 현세린, 고지우, 고지원, 양효리 등 제주출신 골퍼들이 출격한다.

특히 지난 7일 끝난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은 악천후로 36홀 대회로 축소되는 등 정상적인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한번 정상세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우선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 에프앤씨 제45회 KL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를 차지하며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한 임진희가 선봉에 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세린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시즌 개막전인 하나금융그룹 시가포르 여자오픈에서 9위를 기록한 이후 좀처럼 상위권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토대로 반동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PLK 퍼시픽링크코리아 챔피언십 with SBS Golf 7위와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3 2위 등

시즌 TOP10에 두 번 이름을 올리며 제주 골퍼들 중 성적이 가장 나은 고지우는 컨디션 여부에 따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생 고지원은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에서 1라운드 공동 9위를 출발하면서 첫 TOP10 진입에 기대를 걸었지만 최종 성적을 공동 23위로 마쳐야 했다. 하지만 제주 골퍼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내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올 시즌 KLPGA 1부 무대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 양효리는 첫 대회 컷 탈락과 두 번째 대회는 기권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재도전에 나서게 된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정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시니어 투코스 황금연말(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M&W 1부 7:20 해 볼만한 아침 M&W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굿미닝 굿미닝(재) 10:00 건강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비밀의 여자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하늘의 인연(재)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11:15 푸라기 식사교실(재) 11:45 크리켓평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랜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근당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8:00 딩동댕 유치원 9:20 다류형과 길 위의 인생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EBS 평생학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7:40 명탐정 피트 3 18:10 웅진강 소망차 레이 19:20 고향이 보인다
				KCTV
				7:00 KCTV 뉴스 8:00 방송권연초경연대회 수상자 8:30 남민을 고향이 9:30 야간개장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10 KCTV 다류스페셜 14:30 KCTV 스페셜 15:20 야간개장 17:00 KCTV 뉴스 18:00 방송권연초경연대회 수상자 19:50 on 파울 in 제주
				제주CBS FM 93.3MHz 90.3MHz
				7:00 김달기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맞춤뉴스 14:05 송정미의 축복쇼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부
				TBN제주교통 FM 105.5MHz 105.9MHz
				9: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토리 1055 14: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오늘의 운세 11일

36년 분실 또는 손재가 발생하니 문서나 지갑을 잘 관리하라. 48년 재물이 이익이 생기거나 문서 계약에 관한 일이 오간다. 60년 자녀 또는 애셋사람과 논쟁이 있을 것이나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 72년 함께 웃음이나 음식 나눠먹을 일이 생긴다. 이성교제 일할. 84년 밝은 표정으로 상사를 대하면 좋은 기운이 온다.

37년 마음이 갈등이 심화되고 분노, 증오가 일어나도 동의하면 불리. 49년 동료, 동업자와 언쟁, 시비가 있다. 61년 하는 일이 안 풀리면 배우자 또는 애셋사람과 상의하면 해답을 얻는다. 73년 부모나 윗사람 일로 근심이 생긴다. 안부전화 또는 방문해 볼 것. 85년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에서 두각을 발휘.

38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하다. 50년 많은 생각과 긴 검토는 기회를 날려버린다. 순간포착이 필요한 때. 62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면 이득이 생기거나 훗날 결과가 있다. 74년 마음이 급하고 서두른다. 집중력이 필요하다. 86년 결과를 분석하고 시작하라.

39년 계약건에 성사가 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51년 친목이 필요. 애셋사람과 의견 조율이 끝난 뒤의 명예와 직결된다. 63년 몸이 분주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이익 증가. 75년 이동, 변동 활동력이 많아지고 금전적 지출도 생긴다. 87년 젊음은 도전이다. 미래를 위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라.

40년 내부에서 불화가 생기니 언쟁 시 주의. 52년 답답하다. 주변의 도움은 적고 내가 도와야 하니 몸이 피곤하다. 64년 잘 알지 못하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삼가라. 망신수가 있다. 76년 혼자 결정을 망설이지 말고 주변의 지혜를 모아라. 88년 마음이 안정되고 믿음, 능력이 배로 증가하기도 한다.

41년 모인이나 기쁜 일에 참가할 일이 생긴다. 53년 교통, 관제구설이 따르니 외출 자제, 조기가가 하는 것이 좋다. 65년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가족간 불화 조짐이 보인다. 77년 외출이나 여행계획이 생기거나 손님 방문으로 분주하다. 89년 전전화의 시대 전문성에 도전하라. 직장인은 기쁨이 있다.

42년 남의 일에 간섭은 나에게서 곧 망신이 된다. 잡권은 자체. 54년 자식이나 남편 때문에 모임이나 약속, 계획을 지킬 수 없다. 66년 슬픔을 나누거나 기쁨을 축하해 줄 일이 생긴다. 78년 강한 추진력이나 독단성보다 협력과 화합이 요구되는 때. 90년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 생각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43년 가족 또는 부부간에 충돌이 있으니, 배려로 해결하라. 55년 허황된 과욕은 금물. 안정과 절약이 우선되고 투기는 신중하. 67년 경쟁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니 적용하라. 79년 자금지출의 손재수가 있으니 과소비하지 마라. 91년 마음을 비우고 먼저 한숨을 안보이면 쉽게 해결된다.

44년 화합과 모임이 있으며, 가족의식 등 먹거리가 풍족하다. 56년 남의 말에 동요되면 실속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68년 열심히 일한 결과를 취득하는 때. 자식의 기쁜 소식을 접한다. 80년 기혼자는 신경 쓸일이 생긴다. 미혼자는 길. 92년 상대가 내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워 오해의 소지가 발생.

45년 평소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법이 이득이 될 수 있다. 57년 분실 또는 실수가 있으니 금전 또는 지갑 보관을 잘 해야 한다. 69년 구매중동이 생기고 외출할 일이 생긴다. 81년 서두르면 일이 안풀리니 신중하라. 특히 금전거래는 불리. 93년 가족간 의사소통에 역할을 하거나 리더십이 요구되는 날.

46년 각종 인허가건이 생기거나 계약할 일이 발생. 관공소 납품일은 분주. 58년 친구나 동료간 모임이 있다. 활동력 향상. 70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오나 반감하지 않는다. 배반 또는 구설수가 온다. 82년 여성에게 이성이가 다가오고 새로운 발상을 하려 한다. 94년 가족이나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라.

47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단씩 쌓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 59년 배우자나 남의 의견을 수렴해 자기의 생각을 비교 개선하라. 71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툼으로 스트레스. 83년 직업변동이 있거나 시업에 관한 즐거움이 온다. 95년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